

# 47 왕이 된 다윗

사무엘하 2장 1~11절, 5장 1~25절



사울 왕이 죽자 다윗은 유다 땅으로 가도 되는지를 하나님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땅의 헤브론으로 갔을 때,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렸습니다. 7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곧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성경 암송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사도 행전 13:22)

왕이 된 다윗은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성의 이름을 '다윗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 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쳐들어 왔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쭙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움직이라. 그때에 여호와가 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앞서 나가 싸워 주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서 블레셋 군대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다윗 왕은 **기름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윗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었나요?

**기름부음**: 왕이 될 약속



-----

-----



다윗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했었나요? 다음 말씀을 찾아보고 답해 봅시다.



-----

-----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19)



고난 다음에 영광이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 많은 어려움으로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나 집,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나요?

-----  
-----  
-----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  
-----  
-----



고난을 겪고 난 후 다윗은 어떻게 되었나요?

-----  
-----  
-----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따라가면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17~18)

# 예 화



## 돌멩이로 종이배를

어린 소년이 연못가에서 손으로 만든 작은 종이배를 띄우며 놀고 있었습니다. 배가 손에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밀려나자 소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소년의 형이 배가 나가는 방향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어린 소년은 형이 돌멩이로 배를 맞추어 버릴까 봐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던진 돌멩이가 수면 위에 떨어져 생긴 물길로 인해 배가 점점 연못가로 움직여 오는 사실을 깨닫고 울음을 그쳤습니다.

우리도 어린 소년과 같이 고난이 올 때, 돌멩이가 배에 맞는 것으로 알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고 그 뜻을 따르려는 사람을 위해 사랑의 돌멩이를 던져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만드십니다.



부모님난

선생님난